

이화여성신학소식



발행인 : 박경미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성신학연구소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120-750)

전화 : 3277-3278~9 / 팩스 : 312-2062 / <http://eiwts.ewha.ac.kr> / E-mail: E600067@ewha.ac.kr

권 두 언

원자력발전의 대안

박 경 미

기독교학과 교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지 벌써 반년이 되어가고 있다. 분명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후쿠시마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사고 이후 독일과 덴마크, 스위스, 이태리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원자력발전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이 나라들은 단순히 원자력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핵에너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을 함축한다. 그것은 단순히 대체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해온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에너지 집약적이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업문명을 넘어서 새로운 문명의 길을 개척하는 데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석유는 한정된 자원이요, 핵에너지를 대신해서 현재의 고도산업문명을 지탱할 만한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대규모 상업적으로 개발해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 나라들은 후쿠시마를 통해 분명한 교훈을 얻었고, 이제 새로운 실천을 향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후쿠시마를 통해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나 지극히 노후하고 위험하다는 고리 원자력발전소조차 가동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의 소위 지식사회, 가령 언론과 대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한 나라의 '민도'란 결국 그 나라 지식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자력발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대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정치학자 더글러스 러미스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원자력발전의 대안은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말한다. 그는 원자력발전의 대안이 뭐냐고 묻는 것은 아주 편안하고 화려하지만 밑에 다이너마이트가 장착되어 불이 붙은 의자에 앉아서 그 의자만큼 멋진 의자를 가져다주기 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했다. 다이너마이트가 장착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의 대안은 그 의자에 앉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그 의자가 아무리 아름답고 편안해도, 달리 앉을 의자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 앞에 놓인 결단은 원자력발전을 폐지할 것인가, 존속할 것인가가 아니다. 어차피 원자력발전은 폐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 멈출 것인가이다. 원자력발전의 대안이란 사실은 그런 것이다.

서 평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카기 진자부로의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을 읽고

정 술 잎 (기독교학과 석사졸업)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3월은 흉흉했다. 연일 뉴스에서는 한반도로 날아오는 방사능 양을 보도했고, 겨울의 끝을 알리는 봄비는 반갑기보단 무서웠다. 사고로부터 반년이 흐른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우리 사회의 관심에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일차적인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자 정부가 상기시켰던 원자력의 장밋빛 미래는 사람들을 다시 익숙한 불안 속으로 침전시키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원자로들은 안전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원자력만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고, 심지어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는 설명을 듣다 보면 '경제발전을 위해 원자력은 어쩔 수 없지' 혹은 '일본과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안이한 낙관이 현명한 판단인 것만 같다. 후쿠시마의 끔찍함이 무색하게 원자력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상식인 듯하다.

그러나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에서 다카기 진자부로가 원자력을 필수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사람들이 원자력의 '신화'에 감혀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말한다. "원자력은 무한한 에너지원"이며, "값싸고", "안전하며", "깨끗하다"는 것과 같은 주장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어떤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타당한 근거를 갖추지 않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다카기 진자부로가 9개의 장에서 원자력에 둘러붙은 신화들의 형성배경과 그러한 주장들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를 명쾌하게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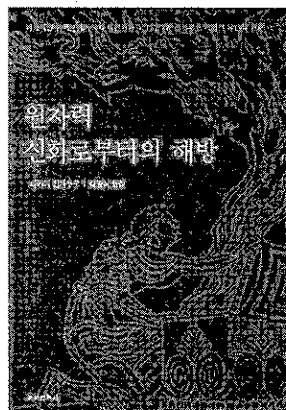
그 가운데 원자력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원자력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늘 벽에 부딪히던 문제들이었던 까닭에 특히 관심이 갔다. 실제로 원자력이라는 첨단 과학을 이해하기에는 과학적 소양이 무척이나 부족한 나로서는 원자력은 무한하고 매우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라는 한 편의 주장을 덮어놓고 받아들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원자력의 안전성이나 가공할만한 파괴력만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안타까운 점은 원자력 발전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것이고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이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열망을 꺾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은 간지러운 등을 속 시원히 긁어주는 것이었다.

다카기 진자부로의 설명에 따르면, 원자력을 둘러싼 경제적인 문제 역시 안정성의 문제만큼이나 근본적으로 핵의 불안정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자연상태에서 원자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원자의 중심부인 원자핵에

중성자를 부딪히주면 원자핵은 분열된다. 이때 엄청난 운동에너지와 함께 중성자와 죽음의 재라 불리는 방사성물질이 함께 나온다.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운동에너지를 직접 전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고, 방사성물질들은 인간의 유전자 고리를 끊어놓을 만큼 강력하지만 폐기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우선 이 운동에너지를 직접 전력으로 전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의 에너지 효율성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핵분열에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어 물을 데워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가 기계적 에너지가 되어 터빈을 돌려 발전기를 돌리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겨우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전환효율은 오히려 화력발전보다 못하게 된다고 한다. “잘 돼도 처음 핵분열로 연소해서 생긴 에너지의 1/3정도가 전력으로 사용될 뿐이고” 나머지는 온배수로 폐기되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즉, 원자력 에너지는 첨단기술을 통해 만들어진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아주 ‘고전적인 발전형태’에 의존하는 것으로, 그 효율성은 매우 낮다. 더불어 원자력은 전력수요가 낮은 때라 하더라도 한번 가동되기 시작하면 정기점검 때를 제외하고는 안전상의 이유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전력생산 방식이며 에너지원으로서의 효용성도 매우 낮다. 방사능 문제로 인해서 전력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자력은 무한한 에너지도 아니기 때문에 낮은 효율성을 눈감아 줄 수도 없다. 다카기 진자부로님은 천연 우라늄의 매장량은 한계가 있으며, 우라늄에서 플루토늄을 증식시켜 자원의 유효이용률을 60배 가까이 뻗튀기할 수 있다는 가설은 이미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 곧 원자력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원자력으로 값싸게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폐로나 폐기물처분, 그리고 종종 계산에서 누락되는 원자력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과 같은 부분들까지 계산하게 되면 애초에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싸지도 않았던 원자력의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된다. 곧 원자력은 결코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아니다.

원자력의 신화들에 대한 다카기 진자부로의 차분하고 과학적인 설명은 비단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안전성이나 환경적인 차원에서 논의에서도 이미 폐기된 가설들과 가려지고 조작된 정보들을 통해 형성된 ‘신화들’의 이면을 시민과학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씩 벗겨낸다. 그럼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진실에 다가가게 만들고 ‘화장실 없는 맨션아파트’에 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아무래도 장밋빛 미래가 사라지고 현실의 무게를 체감하는 것이 달가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직시만이 희망의 온전한 근거이지 않을까? 핵에 대한 막대한 불안과 장밋빛 미래가 주는 적당한 위안 속에서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의 가능성을 인류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다카기 진자부로의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은 현실을 똑바로 바라봄으로써 희망을 되찾기 위한 길을 알려주는 책이다. 원자력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지만, 좌절이나 체념보다는 희망을 가지기 위해 그는 원자력 신화의 진면목을 알고 그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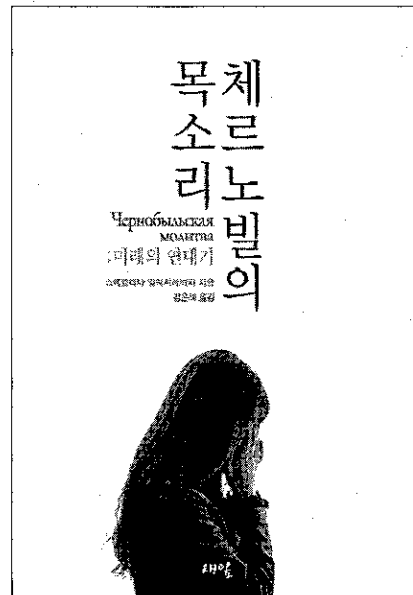


읽을거리

원자력에 대해 더 알기 위하여

■ 원자력에 대해 참고할 책들

- 다카기 진자부로, 『시민과학자로 살다』 김원식 역, 녹색평론사, 2011.
- 다카기 진자부로,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김원식 역, 녹색평론사, 2011.
- 히로세 다카시, 『원전을 멈춰라』 김원식 역, 이음, 2011.
- 히로세 다카시, 『체르노빌의 아이들』 육후연 역, 프로메테우스, 2011.
- 김수진, 오수길, 이유진, 이현석, 정용일 공저,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도요새, 2011.
-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김은혜 역, 새원, 2011.
- 『녹색평론』 녹색평론사 2011년 118호, 119호, 120호.



강연회 참관기

한국여성신학회 정기학술제 참관기

김수연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1. 2011년 5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대학교회 소예배실- “여성신학과 미디어”

지난 봄, “여성신학과 미디어”라는 주제로 여성 신학회 정기학술제가 열렸다. 유난히 많은 비를 쏟았던 여름을 지나 가을을 기다리는 문턱에서, 지난 봄에 열렸던 학술제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본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미디어’를 공통분모로 하여 근래 우리에게 친숙한 소재들이 시기적절하고 흥미롭게 다루어졌는데, 먼저 발표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자.

[발제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진화의 신학적 함의(전철 박사)

첫 번째 발제는 디지털 문명에서 감수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교회의 과제가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신학적 관점에서 성찰하였다.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갈망한다. 그런데 이러한 서로간의 교감이 모니터 속에서 디지털 기호로 탈락되고 붕괴됨으로써 개인의 소외를 오히려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타인의 삶의 이야기들을 접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 끊임없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만나고자 하는 인간 존재의 깊은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는 대목에

공감이 간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위한 기술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피조 세계의 창’으로 이해하여, 이 땅과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정보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열망을 타인을 ‘위한’ 열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대하는 신학의 책임있는 태도임을 밝혔다.

[발제2] 신자유주의시대 교회여성의 자기계발
담론(이숙진 박사)

두 번째 발제는 가족공동체와 평생직장 개념이 해체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개인들이, 무한경쟁의 사회 환경에서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자기계발 열풍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한국 기독교 여성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 자기계발 담론에 초점을 맞추어, 신자유주의 시대의 기독교 자기계발 담론이 어떠한 신앙적 여성주체를 형성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자기계발 욕망은 더 나은 자신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원초적 심성이지만, 이 시대에 그 열풍이 유별난 것은 최대 효율 창출을 위한 경쟁을 미덕으로 삼는 신자유주의 이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속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정체성 확립은 시장논리에 좌우되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든 도태하든 모든 것은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함으로써

극단적 개인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기독교 계에서 간행되는 자기계발서를 역시, 신앙의 언어를 구사하고는 있지만 내용은 신자유주의 이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욕망이 상충되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한다는 중요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현대의 소비문화가 구성하는 몸에 대한 이미지들로 인해, 신체관리를 통한 여성성이 자원화되고 그에 따라 유발되는 자기계발은 자기주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실상은 외부로부터 강제된 욕구와 다름없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주체는 해방적인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

[발제3] 대중매체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성찰
(이인경 박사)

세 번째 발제는 <슈퍼스타케이2>, <위대한 탄생>, <나는 가수다>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소재로 하여, 서바이벌 방식의 TV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중매체에 대한 기독교의 윤리적 성찰을 시도하였다. TV는 한 사회의 문화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반영하고, 핵심적인 가치 체계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데, 신자유주의 시대의 주된 풍조를 반영한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입시경쟁, 취업전쟁 등의 형태로 무한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게 다가가는 현상에 대해 통찰하였다. 그리고 오디션 참가자들의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자투표 등의 방식이 도입돼 제한적 이나마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지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투표참여 연령층이 제한돼 있고, 가창력 등 경연자의 실력만이 아닌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나 사회적 배경 등이 투표

에 반영됨으로써,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려는 경연자에게 가상세계에서나마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자 하는 시청자 자신의 열망이 투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공적 영역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은 모든 문제를 홀로 혹은 가족 단위로 돌파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그 와중에 지친 개인들이 힘겨운 현실세계의 변화에 뛰어들 여력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시대의 주된 가치와 그 가치 속에 내몰리면서도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에 지쳐버린 개인들의 실존상황을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잘 보여주었다.

[발제4] 여성신학적 시각에서 본 한국 드라마
(백소영 박사)

네 번째 발제는 TV 드라마들이 전형적으로 그리고 있는 스토리를 통해 이 시대의 풍조와 가치, 현대 여성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묘사되는 여성상을 살펴보고 이를 여성신학적 시각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학업과 직업 영역에서는 근대성의 시간을 살았던 한국 여성들 상당수가 결혼 후에는 공적 생활을 접고 사적 영역 속에서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삶의 이분화된 구조를 통찰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뛰어넘기 어려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 처진 칸막이를, 자기성취를 이뤄가는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서나마 뛰어넘어보려는 열망이 인기 드라마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 여성해방운동을 통해, 바깥에서 규정하는 여성상을 거부하고 스스로에 의한 자기규정을 말하기 시작한 현대의 젊은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주체적 자기규정'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 또한 '기대되는 나'에 대한

내면화의 결과일 뿐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궁극적으로 홀로 살아가는 시장주체가 모인 시장사회에서, 여성들은 결국 성차를 무화시킨 '전문가 개인' 되기에 주력하고, 이런 현실에서 개인은 '돌봄'이나 '보살핌'의 경험, '다른 생명의 자라남을 위해 자신을 제한하거나 양보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타자'가 되어보지 못하는 근대적 주체 되기만을 연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런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끔찍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는 의미있는 통찰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 '희생', '양육'이라는 가치가 가정 안에서의 감정노동 혹은 여성 개개인의 개인기가 아닌 공적 돌봄으로서의 제도적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뜻깊게 다가왔다.

2. 위로를 찾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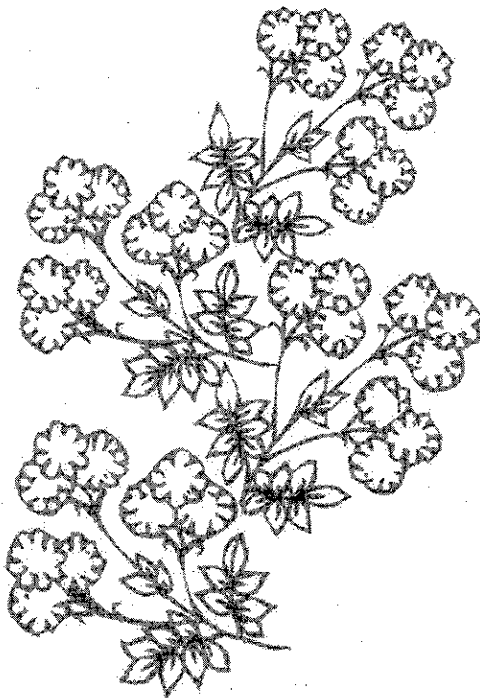
왜 사람들은 바보상자라고 하는 TV에, 그 TV가 보여주는 경연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일까. 또 왜 우리는 휴대폰과 컴퓨터 없는 하루를 지내는 동안은 일종의 불안마저 느끼는 것일까. 자본과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콘텐츠로 악용될 수 있는 SNS에, 순위자를 정하는 과정에,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경연 프로그램에, 개연성을 뛰어넘고 가끔은 허황돼 보이기까지 하는 드라마에 빠져드는 것, 그것은 바보상자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보이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이번 학술제의 발표들을 통해, 무한경쟁과 극도의 개인화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라는 사회 환경 속에서 파편화된 개인들이 자기를 찾고 타인과 소통할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자신이 꿈꾸는 삶의 전개를 예상하기 어려운 현실에

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리는 자기 삶의 스토리를 현실에서 그대로 써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삶의 서사성이 박탈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상세계에서나마 흠어져 있는 삶의 구슬들을 꿰고 싶은 것이 아닐까. 어느 발제에서 지적한 대로, 그런 가상세계에서의 실현이 말 그대로 가상으로만 끝나 버리고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가상세계에서나마 마음속에 묻어둔 꿈의 실현, 울고 웃는 스토리의 전개를 통해 현실에서는 끊어져 버린 구슬 꿰 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신학적 관점에서 각종 매체들을 바라보고, 신학적 분석을 시도할 때 그런 매체가 사용되는 사회적 환경,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나 공정성, 특히 신자유주의라는 환경이 몰아가는 상황들을 날카롭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동시에 기독교나 교회가 지척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건네야 할 위로, 그런 위로를 건넨 역할을 대중매체에 내어준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대가치에 편승하게 만드는 책과 드라마에 빠져드는 것을 사람들의 몰이해이나 신자유주의라는 구조악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데는 구조악과 삶의 모순을 파헤쳐 썩어버린 부분을 드러내는 수술 같은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직시할 수 있게 해줄 내적 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상의 짐을 지고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위로도 필요하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진리의 영'이심과 동시에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위로의 영'이시다.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은 험겨운 삶의 과정에서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겪으신다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진리 없는 위로는 얇고 일시적이며, 위로 없는 진리는 중압감에 인간을 뒷걸음질치게 하거나 끝까지 신실함을 지킬 힘을 잃어버리게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위로를 전해주고 있을까. 기독교가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교회로 찾아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가라

는 물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통, 거기서 얻고 있는 위로보다 미미한 것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신학적 관점에서 미디어를 생각하는 것, 특히나 오랫동안 약자의 입장에서 삶을 겪어온 여성들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생각하는 데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의 고려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 포토앨범 I ◆

여성신학연구소 한국여성신학회 정기학술제(2011. 5. 28.)



개회 인사를 하는 박경미 교수



종합토론의 시간



학술제에 참가한 여성신학회원

이화여자대학교 창립125주년 기념특강 후기

“이화학당 설립자인 스크랜튼 여사의 여성교육 정신”에 대한
이경숙 부총장님의 강연을 듣고...

박 해 경 (신학대학원 원우회장)

올해는 이화여대 창립 1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는 많은 행사들이 열리던 5월의 교정 여기저기에서, 25년 전 대학교를 입학하고 이화 100주년을 맞이했던 기억이 나서 세월이 빠름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그때는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 25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이곳 이화에서 신학대학원생으로 창립 125주년을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사건의 역사적인 이해에 좀 더 주목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지금 현재가 홀로 동떨어져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시간들과 사건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져 왔음을 깨닫는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리라. 이러한 때에 이화의 창립자인 스크랜튼 선생님에 대한 이경숙 부총장님의 강연은 내게 참으로 인상적인 여운을 남겼다.

강연을 통해, 1869년 미국 감리교 여성들이 여성만의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WFMS(미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를 세웠으며, 여기서 볼드윈 여사가 한국 여성 선교를 위해 내놓은 선교기금을 씨앗으로 1884년 스크랜튼 선생님을 여성선교사로 한국에 파송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트랜튼 바로 그 분이 1885년 이화학당을 세우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 WFMS와 이화여대, 이 두 기관은 모두 남녀평등을 기독교의 기본정신으로 보고 여권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두 기관 모두 여성의 지위향상을 예수의 가르침과 결부시켜 “여성은 하나

님의 피조물로서 남성의 보조원이 아닌 독자적인 인간으로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20년 전 학부를 졸업하고 지금 다시 이곳 이화에서 신학을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내가 여성이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더욱 새롭게 다가온다. 그간의 세월 동안 나는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경험하였고, 그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나를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얻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있기에 지금 공부하는 신학과 이화여대가 지향하는 교육정신 속에 녹아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그에 대한 새로운 기독교적 통찰과 도전이 매우 귀중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0년 전 학부에서 들었던 여성학의 추구방향과 도전이 현실의 장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선구적인 학문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갖게 된다. 여성학적 문제 제기나 새로운 인식적 틀은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는 오늘에도 여전히 역설적이고 과장된 소수의 목소리로만 들리는 우리들만의 외침이었던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여성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에 대한 제시가 없는 한, 현실에서 여성학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가 직업의 영역에서 여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기회와 자리를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딸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와 며느리로서의 역할과 다른 이들의 요구 사이에서 이전과 크게 달



이화 창립 125주년 기념강연, 이경숙 교수님

라지지 않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의 현실과 학문적 추구 사이에 있는 그 큰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 실천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내가 여성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학문적 자리에서 배우고 깨달은 여성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결국 현실적으로 무시되고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때이다. 이러한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구체적 실천 없이 이 사회의 보편성 안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소외시킬 때, 어느 사회에나 공존하는 진보와 보수가 현실의 여성의 삶의 현장에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듯 느껴진다.

그런데 이번 강연을 통해 이러한 현실과 여성교육 사이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을 스크랜튼 선생님의 교육정신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스크랜튼 선생님은 이화학당을 창립하며 자신의 교육이념은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이며 외국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해” 남녀가 평등해지고 한국인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갖게 되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스크랜튼 선생님의 교육정신은 기독교 정신, 여성교육, 한국사랑, 헌신과 봉사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정신은 이화학당을 거쳐 이화여자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정신과 실천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고 강조되고 있다. 이를 보면서 나는 이화여대의 교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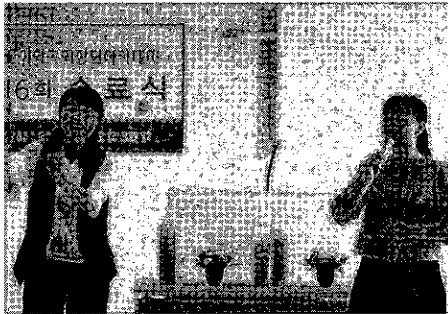
신은 여성을 보다 나은 여성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적극적인 능력을 여성에게 부여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긍지를 갖고 이 사회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에 1세기도 더 전에 한국선교를 위한 볼드윈 여사의 특별헌금이 이화학당의 초석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더욱 새롭게 다가왔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믿음으로 이뤄진 한 여성의 선한 행동이 이화여대라는 큰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이화여대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는 귀중한 예표처럼 여겨졌다.

지금의 나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는 그 큰 변화의 씨앗이 우리를 통하여 뿌려져야 함을,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또한 지금 내가 그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행하는 한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금 이 곳에서 변화된 나의 여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구체적 실천이 나의 딸들이 이 길을 밟을 그 날엔 또 얼마나 크게 자라나 그녀들의 세상을 넓게 할 것인가? 이 소망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125년 전 이화학당을 세우고 새 역사를 만들던 이들과 함께 현재 이 자리에서 새로운 변화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포토앨범 II ◆

2011년 봄학기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수료식(2011. 5. 30.)



수료식 예배 특송



김시원 목사님의 축도



목회상담 아카데미의 인턴선생님들



목회상담 아카데미 수료식 단체사진



교내 소식

■ 이화여성신학연구소

- 2011년 9월 19일 ~ 12월 12일
/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가을학기(www.epcc.or.kr)
시 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 소: 대학교회 106호
- 2011년 9월 27일(화) ~ 9월 29일(목) 오후 2시
/ 원자력과 민주주의 심포지움
장 소: 대학원관 중강당

■ 기독교학과

- 2011년 9월 6일(화) 오후 5시 30분
/ 기독교학과 신대원 연합 개강예배
장 소: 대학교회 201호

■ 신학대학원

- 2011년 10월 10일 ~ 24일(매주 월요일)
/ “교회 내 업무촉진과 갈등해결을 위한 워크숍”
공개강좌
장 소: 대학교회 201호
 - 10. 10. (목사님)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손운산 교수(기독교학과)
 - 10. 17. 그룹의 소통을 이끌기 위해
백지연 교수(국제사무학과)
 - 10. 24. 퍼실리테이션 스킬을 활용한 교회 내
커뮤니케이션 김혜선(스크랜튼센터)
-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5시 30분
/ 중강예배
장 소: 대학교회 201호

■ 교수 동정

- 정화성 교수
- 신학대학원교학부장 임명



교외 소식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2011년 10월 12일 오후 2시
/ 교회여성토론회 - 생명과 평화가 담긴 건강한 소비
장 소: 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
- 2011년 하반기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4시
/ 기독교여성을 위한 <웰컴 투 섹슈얼리티> 강좌
장 소: 기독교연합회관 1311호
 - 9. 26. 성폭력의 재구성: 교회의 성폭력, 여성이 만
만해?
 - 10. 24. 교회, 여성, 몸: 여성, 교회 안에서 섹슈얼리
티를 말하다
- 2011년 11월 2일(수)
/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위한 공개토론회
주 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여성, 건강한 지도력

■ 한국여성신학회

- 2011년 10월 21일(금) ~ 10월 22일(토)
/ 한국기독교교회 정기공동학술대회 여성신학회
분과발표
주 제: 글로벌시대의 한국신학
장 소: 온양관광호텔
주 제 발 표: 최영실(성공회대)
신약성서 여성관에 대한 남성 신학자들
의 해석
학회별발표 1: 김애영(한신대) 글로벌시대의 한국여성
신학-여성신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학회별발표 2: 임희숙(한신대) 한국개신교 여성운동의
의의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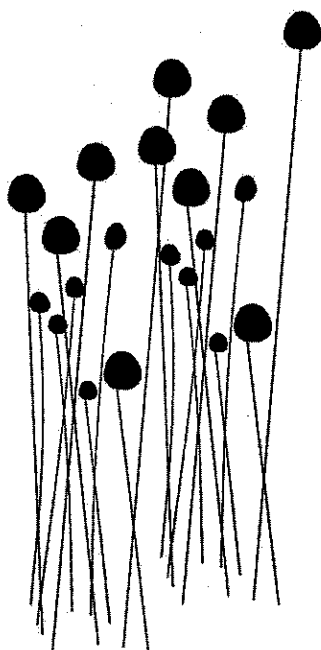
■ 한국여성단체연합

- 2011년 10월 12일(수)
/ 여성운동아카데미 심화토론회
- 2011년 10월 13일(목) ~ 14일(금)
/ 여성주의 복지학교
- 2011년 10월 25일(화) ~ 29일(토)
/ 인터넷 불쾌광고 대안마련을 위한 네티즌 토크쇼
문 의 : 02-313-1632

- 9월 21일
김혜원, 이호순, 유춘자, 정숙자:
네 여신의 이야기-내 여성신학의 화두는 무엇이었나?
- 10월 19일
김애영:
글로벌 시대의 한국여성신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 11월 23일
이은선: 유교의 종교성과 한국여성신학
- 12월 21일
함인숙: 다석의 '몸성히, 맘놓여, 뜻태우' 명상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2011년 9월 ~ 12월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4시-6시
/〈수요여성신학포럼: 한국여성신학의 탐색과 전망〉
장소: 새문안교회 언더우드교육관



광 고

원자력과 민주주의 심포지움

1. 심포지움의 취지와 방향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그동안 안전·청정에너지라는 신화로 포장되었던 원자력발전이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한 채, 원자력발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원자력추진 측의 입장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덴마크, 이태리 등 세계 여러 나라가 후쿠시마 사태로부터 깊은 교훈을 얻어 원자력발전 중단 선언을 하고, 결국은 산업문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사회는 후쿠시마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식사회, 특히 언론과 대학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이에 지금이라도 학생, 대중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자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신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핵/원자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 행사 일정

- 일 시: 2011년 9월 27일(화) ~ 29일(목)
오후 2:00
-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관 중강당

3. 강연 일정

9월 27일(화)

- 강 연 I
원자력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 강 연 II
원자력, 필요악인가? /
김익중(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동국의대 미생물학 교수)

9월 28일(수)

- 강 연 I
선악과, 원전, 그리고 생명의 미래 /
장윤재(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소장)
- 강 연 II
원전과 생태민주주의, 하느님 나라 /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역임, (사)생명평화마중물 대표)

9월 29일(목)

- 강 연 I
Rokkashomura Rhapsody 영화상영 /
카마나가 히토미 감독과의 대화

9월 27일(화) ~ 29일(목)

- 중강당 앞뜰
모리즈미 다카시 반핵 사진전 /
(사)생명평화마중물 제공

■ 문의: 이화여성신학연구소 3277-3278,
E600067@ewha.ac.kr

Feminist Theology News

Table of Contents

■ Foreword	Kyung Mi Park	1
■ Book Review		
Emancipation from the Myth of the Atomic Power		
.....	Sol Ip Jung	2
■ Lecture Review I		
Feminist Theology and Mass Media		
.....	Su Yeon Kim	5
■ Photos I		9
■ Lecture Review II		
Mary F. Scranton's life and her spirit of women's education		
.....	Hye Kyung Park	10
■ Photos II		12
■ News		13



Ewha Institute for Women's Theological Studies

52, Ewhayeodae-gil Seodaemun-ku, Seoul, Korea 120-750

Tel. 82-2-3277-3278 Fax. 82-2-312-2062

Homepage: <http://eiwts.ewha.ac.kr>

E-mail: E600067@ewha.ac.kr